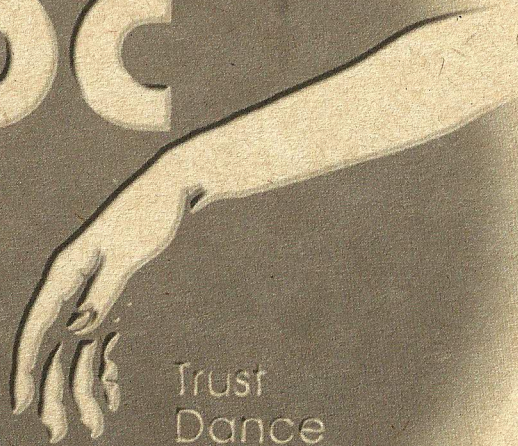


'96

트러스트 현대 무용단 정기공연

Trust Dance Company Performance

TDC



Trust
Dance
Company

- 일시 : 1996. 9. 30(월) 오후 8시
- 장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트러스트 현대무용단

가을들관 황금물결처럼
울려퍼질 우리들의 노래

Our Pastoral Song in Fall

단풍을 가득 실은 달구지 시위에 베낭을 베고 누우면, 내 마음 한상 가득 구름잔치곡에 날개옷 입고 둥실거립니다. 하지만 진정 전원의 노래를 음미하려면 고개숙인 이삭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을 먼저 배워야 할 것 입니다.

창단 이후 1년반이라는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만의 전원노래를 부르며, 단풍 가득 실은 달구지에 이끌려 안위의 세월에 적응해 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들관 가득 영그는 이삭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 지난 여름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시험해야 했고 단련해야 했습니다.

유별나게 땀이 많은 현미와 윤규, 지난 봄 공연을 앞두고 허리를 다친 지연이, 그저 춤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대구에서, 서울에서 학교수업에 쫓겨 다니며 열심을 다하는 연구 단원들, 이 모든것이 가을날 들관의 황금물결을 이룬 사랑스러운 이삭과도 같았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제 그간의 땀과 노력을 노래로 만들어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고자 합니다. 아직은 어려 성긴틈 사이로 불어드는 가는바람에도 어지럼움 감추기 어려운 저희들이기에 늘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언제고 함께 불러야 할 우리들의 노래이기에 감히 두려움 뒤로하고 이자리에 섭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농부의 땀 그 위로 펼쳐진 가을 들관의 황금물결처럼 자랑스럽게 여러분과 함께 부를 우리들의 노래를 힘주어 부르겠습니다.

트러스트 현대무용단 대표 김형희
Trust Dance Company Kim, Hyeong-Hee

I. 잃어버린 봄 Lost Spring

· 안무 / 김윤규
· 출연 / 김형희 · 임현미 · 염지연 · 김윤규

밤새 깜박이던 눈들이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내려앉은 봄 아지랑이 성긴틈에
꽤인눈 빈 구덩이만
가득히 널려 있었습니다.
그날 세상에는 봄이 없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이마아래 빈구덩이가 두개씩
큼지막히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Episode 1 Lost Spring

The past is thought to be beautiful when connected with memories, But can we say that the past is beautiful only because of memories? How about our present appearances? Do they help make our memories beautiful? We should make the present remind us of the beautiful past.



II. 네 안에서.....(부제 : 불완전한 동행) Sub - title : Concordia discors

· 안무 / 임현미
· 출연 / 염지연 · 임현미

Episode 2 Sub - title : Concordia discors

A man's two appearances. Two men's one appearance. We say that one plus one equal not two, but big One.

III. 해바라기 Sunflower

· 안무 : 김형희
· 출연 : 임현미 · 김윤규 · 열지연 · 김정민 · 김지영 · 유연아
김일환 · 유노경 · 지시경

비가 내린다
극히 네모가 된 석회 반죽 사이
상처만 방울방울 눈을 흘긴다.
꿇을 수 없는 엽록의 검은 점속에서
오늘도 해바라기 고개를 떨구었다.

지난 밤 꿈에라도 만졌어야 할 아무진 도야지가
이땅 구원의 神일줄이야

비에 젖어
결리는 몸동아리 부여안고 악으로 불러본
이별기는 목이 메인채 비속으로 사라지고
이 길에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버렸나

어둡고 거대한 석회 반죽 틈 사이로
초라한 목숨
그 앞에 우뚝 덩치 키우는 투명한 그림자는
비바람에 찌그러져 달그락 거리며 뛰노는 쇠젓가락과
땀, 눈물 그리고 비.

육십축 불빛은 해바라기를 노린다.
나뭇구는 손가락 술한잔에 지워버리고
고개들어 육십축 불빛에 춤을 추었다.

덜그럭 척 덜그럭 척
뛰노는 젓가락과
육십축 해바라기
춤을 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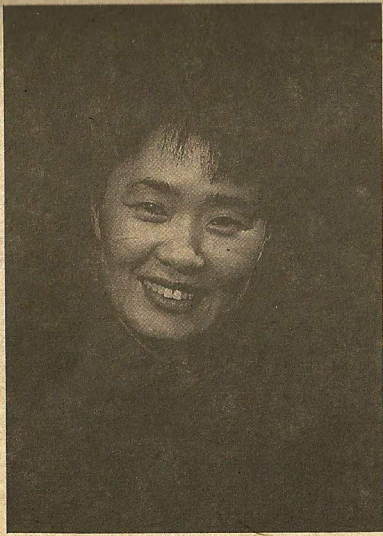
Episode 3 Sunflower

A laborer is just a laborer. Here is One laborer's proud life. He is trying to raise his son as a laborer in the middle of social contradictions, which are not trying to produce laborers any more. We call him a real laborer.



Staff:

- 기획 : 트러스트
- 무대감독 : 권영준
- 무대미술 : 권오진
- 사진 : 이호형
- 의상 : 김외동



김형희



임현미



김윤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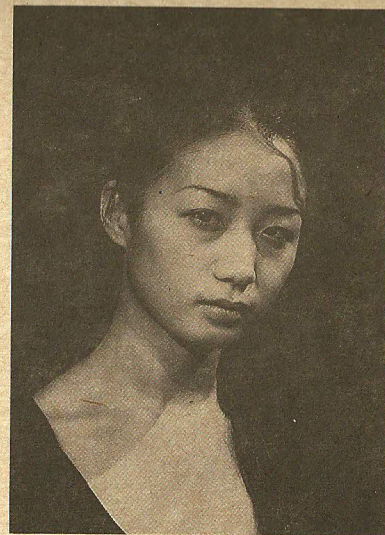
염지연



김 정 민



김 지 영



유 연 아



김 인 화



윤 노 경



지 시 경